

저축은행 지점 설치 신고제로 완화...자율성 제고



금융위,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2월 국회제출...고객접점 확보 기대

저축은행이 앞으로 신고만으로 지점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차관·국무회의의 상정을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하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규제체계 재정립을 목표로 올 1~7월 유관기관 간 실무 태스크포스(금융위·금융원·금융연구원·예금보험공사 등)를 통해 규제 완화를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을 구제했다.

저축은행의 지점설치는 과도한 외형성(예금, 대출 등) 확장에 따른 부실 가능성 등을 감안해 인가제로 운영해왔지만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출장소·여신전문출장소 설치의 사후보고로 바꾼다.

그동안 저축은행은 영업활동과 무관한 사무공간 확장 시까지 인가를 받도록

해 경영 자율성이 제약돼 고령층과 소외지역 고객과의 접점 확보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비대면 거래 확산으로 지점 없이도 외형 확장을 할 수 있는데 규제의 당초 취지도 퇴색된 측면이 있었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이 영위할 수 있는 고유·겸영업무는 별도 구분 없이 법에 열거돼 그 외 업무는 모두 '부대업무'로 보고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만 할 수 있었는데 타 업권과 유사하게 고유·겸영·부수업무 체계로 개편하고 영위할 수 있는 업무를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그동안 은행법 등 여타 금융법은 금융회사의 업무로 ▲고유업무 ▲겸영업무

▲부수업무로 구분하고 있는 것과 달리 저축은행은 신규업무 반영이 용이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저축은행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경과실까지 임원에겐 연대책임을 지우던 것은 경과실까지만 책임을 지게 한다.

부실화를 방지하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경과실까지 임원에겐 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아울러 유가증권 투자 한도 초과 해소를 위한 유예기간도 개선된다.

저축은행은 유가증권 보유 한도(자기 자본의 100% 이내)를 초과하더라도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일률적으로 1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초과분을 해소할 수 있

다.

다만 보유 중인 유가증권 가치 상승으로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등을 감안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당국은 유가증권 가치 상승으로 한도 초과 시 유예기간을 3개월 부여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이밖에 예외사유의 종류에 따라 1년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경영 자율성이 제고되고 고객 접점확보가 보다 용이해질 것"이라며 "신사업 진출이 보다 쉬워지고 임원 연대책임 완화로 임원의 업무 위축 및 우수 인재 초빙의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

다만 보유 중인 유가증권 가치 상승으로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등을 감안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당국은 유가증권 가치 상승으로 한도 초과 시 유예기간을 3개월 부여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이밖에 예외사유의 종류에 따라 1년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경영 자율성이 제고되고 고객 접점확보가 보다 용이해질 것"이라며 "신사업 진출이 보다 쉬워지고 임원 연대책임 완화로 임원의 업무 위축 및 우수 인재 초빙의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이어 '지니키템' 출시

진이어가 국내 항공사 중에서는 처음으로 기내식을 콘셉트로 한 냉장 가정간편식(HMR) 상품인 '지니키템 더리얼'을 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진이어는 해외 여행을 가지 못하는 고객의 아쉬움을 달래고, 집에서 기내식을 맛볼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항공기내 서비스 전문 기업 이노플라이와 함께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메인 요리는 물론 식전빵부터 디저트까지 국제선 기내식과 동일하게 구성했다.

특히 기내식 박스를 본뜬 패키지와 조리 방법이 담긴 탐승권, 커피리더 등을 그대로 포함해 재미를 더했다. 메뉴는 ▲비프 골라쉬 파스타 ▲캐슈넛 치킨과 취나물밥 ▲크림파스타 등 총 3종으로 추후 새로운 메뉴를 선보일 계획이다. 구매는 이달 말 오픈 예정인 진이어 홈페이지 내 '지니키템'에서 할 수 있다. 이노플라이는 해당 상품의 메인 요리를 냉동 HMR로 생산해 오프라인 채널로도 선보일 예정이다.

한전KDN, 10년 연속 품질경쟁력 우수

지속적인 품질경영 성과

한전KDN이 최근 열린 제46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10년 연속 품질경쟁력 우수기업선정과 IT업계 최초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출전 및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한전KDN은 탁월한 품질경영 역량을 인정받아 전년도에 이어 다시 한 번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1등급에 선정됐다.

이는 1997년 ISO9001 품질경영시스템 도입을 시작으로 ISO/IEC 20000, 27001 및 CMMI(능력성숙도통합모델) 등 국제품질 규격 인증과 정부기관의 인증 등 지속적인 품질경영을 추진해 왔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한전KDN은 더 나아가 전력산업 정보보안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기업 최초로 ISO/IEC 20000(IT서비스

과 27001(정보보안경영시스템) 동시 인증을 획득하는 등 품질경영 역량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더불어 IT기업 최초로 출전한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서 현장중심의 참신하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통해 은상과 동상을 수상했다.

'자유형식' 분야에 출전한 K-사피엔스팀은 '유지보수 비용 지불 업무개선으로 처리시간 단축'을 주제로 은상, '6시그마' 분야에 출전한 AMIGO 팀은 '다기능 데이터 집중장치 개발로 검점 성공률 향상'이라는 주제를 통해 동상을 수상했다.

한전KDN 박성철 사장은 "앞으로도 체계적인 품질경영활동과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전력ICT 공기업으로서 국가의 산업발전과 미래까지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성진 기자



aT는 태국 방콕에서 한국 신선과일 최대 수출시즌 시작을 알리는 '신선과일 겨울 페스티벌' 이벤트를 개최했다. /aT 제공

SKT, AI 기부프로그램 운영

SK텔레콤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업무협약해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기부 프로그램 'AI 기부유'를 선보인다고 23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이용자가 AI 스피커 '누구'로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게 한다. 누구 호출어인 '아리아'를 부르고 "기부유에서 유니세프로 기부해줘"라고 말하면 "3,000원 기부할까요?"라는 답변과 함께 기부 안내 URL을 문자로 받을 수 있다.

양사는 AI 기부유 이용 고객의 패턴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기부 문화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각국 유니세프 위원회에 NGO단체와 민간 기업이 함께 만든 우수 협력사제로 소개해 글로벌 기부 프로그램으로 키울 방침이다.

사학연금, TP금융지식나눔 교육기부

교육발전·사각지대 해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전남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TP금융지식나눔' 금융 교육기부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TP금융지식나눔' 교육사업은 광주·전남혁신도시 내 교육관련 공공기관으로서 사학연금이 지역 교육 발전과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전남여성에서 이뤄진 교육기부에는 사학연금 직원들이 보유한 역량을 활용해 직접 금융교육 수업을 진행했다. 또한 지난해까지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쌍방향 교육으로 진행됐다. 금융교육 내용은 금융진로교육, 공적연금과 지역연금 설명 등으로 구성됐다.

사학연금은 2013년부터 꾸준히 진행됐던 사업으로 지난해 교육기부대상과 사회공헌대축전 대상으로 4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24일에는 광주선광학교에서 특수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축과 소비에 대한 이해 등으로 수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학연금은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금융 교육 기부를 통해 올바른 금융 지식을 전달할 수 있어 지역 내 교육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선옥 기자

국산딸기 태국 크리스마스 선물로 인기

aT, 태국 백화점서 '신선과일 겨울 페스티벌' 개최

한국산 딸기가 태국에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태국 방콕에서 한국 신선과일 최대 수출시즌 시작을 알리는 '신선과일 겨울 페스티벌' 이벤트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산 농산물이 대거 입점되는 시기에 맞춰 방콕 시내 최고급 백화점 엠피프리엄의 고메마켓에 위치한 한국 신선농산물 전용 판매공간인 'K-Fresh Zone'에서 열렸다.

행사는 24일까지 지속되며 행사기간 동안 K-Fresh Zone에서는 스타품목인 딸기뿐 아니라 포도, 배, 감 등 현지에서 인기있는 한국산 신선과일의 시식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현지소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특별판매부스 설치해 한국 전통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연말 분위기를 한껏 돋울 예정이다.

'K-Fresh Zone'은 현지 슈퍼마켓 등 유통매장 내 한국산 전용 특별매대로, 딸기·포도·복숭아·블루베리·버

섯 등 한국산 신선농산물을 연중 판매한다. 또한 소비자에게 한국산 신선농산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홍보하는 현지 플래그십 스토어로, 태국에만 총 8개소가 운영 중이다.

그동안 태국은 높은 관세율과 까다로운 검역요건으로 딸기, 배 등 일부 품목으로만 수출이 국한됐지만 품질과 안전성 면에서 엄선된 최고의 품목만이 판매된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현지소비자들의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태국 딸기 수출은 10월 말 기준 전년 동기대비 16% 증가한 571만 달러를 기록했다. 또한 거봉, 사인머스켓, 머루포도 등 신선포도 수출은 65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12% 급성장하고 있다. /박선옥 기자

미래형 인증기술 특허출원 급증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미래형 인증기술 특허출원이 늘고 있다.

23일 특허청에 따르면 미래형 인증기술 특허출원은 2015년 123건에서 지난해 222건으로 늘었다. 연평균 16% 증가했다.

세부 기술별로 보면 생체인식기술은 2015년 123건에서 지난해 208건으로 늘었다. 최근 주목을 받는 분산 ID 기술은 지난해 14건에서 올해 9월까지 36건으로 출원이 급증했다. 유망한 기술인만큼 시장 주도권 경쟁도 치열하다. 마이크로소프트, IBM과 같은 빅테크기업도 분산 ID 서비스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중소기업 출원이 47%(456건)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며 출원을 주도했다. 이어 대기업 21%(203건), 외국 법인 11%(111건) 등 순이었다.

그린알로에

GREEN GOONG PRIME EVER 120

그린궁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